

김사량의 「향수」에 나타난 기독교 의식

— 전향과 세계주의의 의미를 중심으로*

전 계 성**

요약

이 글은 김사량의 「향수」의 전향 서사와 세계주의 지향 서사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분석한다. 「향수」 곳곳에 배치된 기독교적 요소들은 서사의 중심을 잡고 있는 전향에 관한 이중 의식을 규명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일본에서 일본어로 발표된 「향수」에 40회에 달하는 기독교 관련 표현이 노골적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향수」의 기독교 의식이 천황제와 결합된 일본적 기독교가 연막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기독교 구원 의식은 아편 중독자들이 전향을 통해 귀향에 이르게 하는 매개 수단처럼 보인다. 가아가 아편 중독자들의 핏값으로 산 이현의 평양행 기차표가 등장하면서, 고려청자와 이조백자의 귀향을 위한 삼백 원과 피 흘리는 예수의 액자 앞에서 오열하던 가아의 모습은 하나로 연결된다. 특히 가아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예레미야 애가」의 구절과 이현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아에게 건넨 재생 권고 메시지는 유대인의 여호와의 대한 변절·징벌·귀향(회복) 서사를 상기시킨다. 이러한 장치들은 「향수」를 일본을 결코 소거할 수 없는 이중언어자 이현의 구원 의식을 일본적 기독교로 귀결시키지 않고 '거꾸로 된 전향', 즉 민족의 기독교적 구원으로 이끈다. 이는 실로 가장 트랜스내셔널리즘적인 위치에서 내셔널리즘적 지향성을 기독교를 통해 실현했던 김사량의 치밀한 전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제어: 김사량, 향수, 기독교, 전향, 디아스포라, 세계주의, 트랜스내셔널리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1S1A5C2A02086917)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 경북대학교 미주·유럽연구소 전임연구원

목차

1. 문제제기
2. 전향 서사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3. 경합하는 의식들: 민족과 제국의 기독교
4. 세계주의의 실체: 디아스포라 귀향 의식
5. 마무리

1. 문제제기

「향수」(1941.7)는 일본어가 능통한 조선인 유학생의 시선으로 일제강점기 재중 한인의 아편 중독과 전향 문제를 다룬 김사량의 일본어 소설이다. 김사량의 전략적 시국협력 사실을 둘러싼 ‘친일 또는 저항’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고려할 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민족주의자의 ‘전향’을 다뤘다는 점에는 확실히 문제적인 측면이 있다. 더욱이 동경제국대학의 조선인 유학생이 고향인 평양을 거쳐 북경으로 이동하여 그곳 조선인의 삶을 조명하는 「향수」의 서사는 ‘일본-조선-중국’이라는 초국적 스펙트럼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론 「빛 속으로」는 일본에서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올랐고 「천마」는 식민지 권력에 아부하는 조선인을 통렬히 비판하기도 하지만, 김사량의 소설 가운데 「향수」처럼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향수」의 국제적 스케일은 일본 제국주의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방향성과 결부되어 있다. 그 방향성은 일차적으로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거부 의사로 읽힌다. 중국·일본·조선이 집약되어 있는 1938년 당시의 일본군이 점령한 북경을 배경으로 대동아공영의 현실을 밑바닥까지 훑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김재용은 「향수」에 대해 “일본제국의 신민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과 이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대

조”¹⁾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지적한 바 있는데, 후속 연구들 중에서는 주로 친일과 저항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향수」를 저항적 텍스트로 읽는 경우²⁾가 많다.

김현생은 “작가는 결코 일제의 어떤 정책에도 진정으로 동조하지 않는다”³⁾는 입장을, 이경재는 “하나의 의장처럼 친일적 문장을 곳곳에 배치”⁴⁾하고 있을 뿐 전략적 협력 속에서 저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신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향수」에 이르러 제국은 중국을 대동아공영권의 한 무대로서 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 기독교/자본주의의 연출에 의해 오히려 후경화”⁵⁾된다고 지적한다. 김주리는 아편 중독 서사를 “파시즘의 현실에 대한 부정성을 선언하는 저항”⁶⁾으로까지 해석을 확장하기도 한다. 모지현 또한 가야의 ‘비국민위치’ 고수 행위를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제국주의적 정체성에 균열을 만드는 의도적 행위로 해석하여, 「향수」를 저항적 텍스트로 읽고 있다.

- 1) 김재용, 「일제말 김사량 문학의 저항과 양극성」, 『실천문학』 83, 실천문학사, 2006, 513면.
- 2) 김현생, 「김사량의 문학세계에 나타난 토포스와 서사적 의미 - 「천마」, 「무궁일가」, 「향수」를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 문화』 78,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이경재, 「김사량의 「향수」에 나타난 세 가지 향수(鄉愁)」,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하신애, 「제국의 시선과 식민지의 눈(들)-오태영의 『오이디푸스의 눈』(2016)을 통해 본 동아시아 연구의 향후 과제들-」, 『사이間SAI』,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6; 김주리, 김주리, 「아편굴의 조선인 - 일제강점기 소설 속 아편 밀매업자 표상 연구」,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나병철, 「김사량 소설에 나타난 사상적 전향과 문화의 기억」, 『한국현대문학연구』 57, 한국현대문학회, 2019; 모지현, 「내셔널리즘을 횡단하는 ‘비(非)국민’의 시선 - 김사량의 「향수」에 나타나는 아편 중독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97, 한국문학회, 2024.
- 3) 김현생, 「김사량의 문학세계에 나타난 토포스와 서사적 의미 - 「천마」, 「무궁일가」, 「향수」를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 문화』 78,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69면.
- 4) 이경재, 「김사량의 「향수」에 나타난 세 가지 향수(鄉愁)」,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111면.
- 5) 하신애, 「제국의 시선과 식민지의 눈(들)-오태영의 『오이디푸스의 눈』(2016)을 통해 본 동아시아 연구의 향후 과제들-」, 『사이間SAI』,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6, 351면.
- 6) 김주리, 「아편굴의 조선인 - 일제강점기 소설 속 아편 밀매업자 표상 연구」,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174면.

그러나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김사량이 「향수」에서 구원 의식을 설파하는 ‘일본 국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갖는 문제성이다. “오늘날 이 광야에는 철도가 놓이고 만주국도 건강한 발전을 이루어, 나는 또 한 사람의 완전한 일본 국민으로서 북경으로 가고자 이 만주국을 횡단하고 있다”⁸⁾라는 이현의 고백을, 김사량의 저항적 심연은 은폐하고 있는 친일 텍스트의 표층으로만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만약 이현의 민족주의적인 내면이 일본 제국주의의 초국적 연합에 대한 이상향과 어떤 접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조선을 되찾겠다는 순수한 민족주의 의식과는 또 다를 것이다. 이때 이경재가 언급한 ‘의장 같은 친일적 문장’은 완전히 친일적인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의장은 아닌, 전혀 다른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수」 서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향’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향은 단순히 저항에서 친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김사량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향’ 서사는 태평양전쟁 발발 당시 취할 수 있었던 여러 정치 의식의 범주를 보여준다. 민족주의자와 전향자, ‘민족을 사랑하는 전향자’, 세계시민주의적 민족주의자가 바로 그것이다.⁹⁾ 물론 친일과 저항의 이분법적 관점에서는 전향에 대하여 ‘민족을 사랑하는’이라는 수식어를 허용하지는 않는다. 시국협력의

7) 김사량이 주인공 이현을 ‘일본 국민’으로서 등장시키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향수」를 저항 텍스트에서 친일 텍스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김사량은 「향수」 발표 한 달 전에 「조선문학과 언어문제」를 『삼천리』에 발표하며 이중언어에 대한 고뇌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언어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방향성에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8) 김사량, 「향수」, 『김사량, 작품과 연구』, 김재용·곽형덕 편역, 역락, 2013, 154면.

9) 이양숙은 “「향수」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전향한 자로 보”는 김혜연과 달리 “이토나 이현처럼 관념의 차원에서 전향하는 것과 박준, 옥상렬과 같은 혁명가의 전향이 다를 것이며 또한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목도하면서 혁명세력의 붕괴를 지켜본 옥상렬의 전향과 감옥에서 전해들은 이야기와 오랜 사색을 통해 전향을 결심한 박준의 그것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양숙, 「일제 말 북경의 의미와 동아시아의 미래 - 김사량의 「향수」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198면 참조.)

증거에 대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은 글자 이면에 숨겨진 민족주의적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비판하며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철은 “저항/협력, ‘애국/매국’, ‘민족/반민족’의 분류법, 나아가 ‘친일’이라는 개념 아닌 개념을 견지하는 한, 진정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¹⁰⁾고 지적한다.

김재용은 김사량 문학을 “파시즘의 진군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류의 공통된 노력 속에서 동북아와 조선을 읽으려”는 “비민족주의적 반식민주의”¹¹⁾적 시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친일-저항’의 이분법적 관점을 일정 부분 극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상해에서의 여러 사건의 여파로 평양에서 심한 감시와 내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관헌의 주목을 받는 만큼 내용상의 굴절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¹²⁾라는 김재용의 언급에서는 시국협력적 표현을 전략적 협력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민족문제를 외면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는 분명 다른 길”¹³⁾이라는 김재용의 언급 가운데 ‘민족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와 ‘비민족주의적이다’라는 표현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국제주의적 또는 세계주의적이라는 말을 비민족적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과연 민족문제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세계주의로 나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지니는지에 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것이 김사량 문학이 지닌 정체성의 일면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지라도, 김사량이 「항수」를 통해 언급한 세계주의 또는 국제주의가 어떠한 구체적 가치 체계와 맞물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작품 해석을 통해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0) 김철, 「두 개의 거울: 민족 담론의 자화상 그리기 - 장혁주와 김사량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7, 상허학회, 2006, 161면.

11) 김재용, 「일제말 김사량 문학의 저항과 양극성」, 『실천문학』 83, 실천문학, 2006, 518면.

12) 김재용, 「김사량과 중국」, 『한민족문화연구』 54, 한민족문화학회, 2016, 94면.

13) 위의 글, 95면.

2. 전향 서사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향수」에는 국제주의와 연관시켜볼 수 있는 두 가치¹⁴⁾, 즉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공산주의는 이토 소위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사조의 물결’, ‘동지’라는 단어로 암시되는 데서 그치며, 이는 김사량의 조선예술좌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기독교적 요소는 기독교도인 어머니, 하느님(9회), 구해내려고, 구제, 신앙심, 은혜(2회), 은총(4회), 광야(2회), 정원(에덴동산 상징), 예수, 마리아, 시온(3회), 빛, 광명, 구원(3회), 구해주세요(2회), 영혼, 혼령의 숨소리, 혼의 신음소리, 희생양, 재생 등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곽형덕의 언급¹⁵⁾에 따르면 『구약성서』의 「예레미야애가」 4장 10절, 30장 11절 내용과 완전히 겹치는 내용도 등장한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그가 혹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소설 「향수(鄉愁)」에는 그의 이러한 태도가 분명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¹⁶⁾는 안우식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향수」의 국제주의 또는 세계주의는 기독교와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할 때 좀 더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선예술좌 활동과 「토성량」이라는 작품의 색채, 그리고 중국 연안으로의 탈출 이후 집필한 「노마만리」 등 공산주의 문학사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다룰 여지도 충분하지만 「향수」에서만만큼은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우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찍이 오다 마코토는 일본인의 전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는 ‘천

14) 여기서 굳이 ‘가치’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김사량이 「향수」에서 주인공 이현의 “내 체내에도 이 가치 만큼의 지나인의 피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훌륭한 동아의 한 사람, 세계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향수」의 아편 중독(밀매) motif를 ‘피’와 연결시키면서 ‘가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15) 곽형덕, 「김사량작 〈향수(鄉愁)〉에 있어서의 ‘동양’과 ‘세계’-전향의 전제 조건을 둘러싸고, 『현대문학의 연구』 5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214-215면 참조.

16) 안우식, 『김사량 평전』, 문학과지성사, 2000, 85면.

황에의 귀의와 '가족의 견인력'이 「향수」의 전향 서사에서는 소거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오다 마코토는 “가족제도의 특수논리에 대항해, 김사량은 여기서 기독교 보편 논리를 대치”¹⁷⁾시키고 있는 점을 들어 「향수」가 전향을 거부하는 작품일 수 있다고 보았다. 기독교적 요소를 근거로 ‘전향 거부’라는 작품의 전반적인 맥락을 규정할 것이다. 곽형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향수」의 전향 서사가 『구약성서』의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 서사를 환치한 것으로 보고, 「향수」를 “시국의 변화와 함께 조선인 민족주의자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궤적을 청취 및 응시하면서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할 길을 모색”¹⁸⁾하는 작품으로 규정한다. 오다 마코토가 일본의 천황제와 일본 가족제도에 대항하는 기독교 보편 논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곽형덕은 「향수」 서사의 중핵을 기독교 구약성서의 구원 모티프로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¹⁹⁾

하신에는 「향수」에서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함께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밝혀 해석을 더욱 진전시킨다. “자본에 의해 합일되고 예수의 피에 의해 정화(淨化)되는 이 동아의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제국주의는 어느 순간 침습(侵襲)할 여지를 잃는다”²⁰⁾ ‘가야의 방’을 제시하며 제국주의의 대척점에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있음을 지적한다. 다만 아편, 자본주의, 제국주의 사이의 관계 구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박

17) 오다 마코토, 「어떤 부정하기 힘든 힘 - 김사량의 「향수(鄉愁)」, 『김사량, 작품과 연구1』, 역락, 2008, 439면. 곽형덕은 “이 평론은 오다 마코토가 1979년 1월 『문예(文藝)』에 연재한 〈소설세계 속에서〉 여덟 번째 연재물을 번역한 것”(429면)임을 밝히고 있다.

18) 곽형덕, 앞의 글, 228면.

19) 이양숙 또한 “몰락한 혁명가와 그들의 사상적 뿌리 및 혈통적, 문화적 토대(가족애, 기독교정신)를 통해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조선과 중국, 일본의 관계 및 운명을 고찰”했다고 밝히며 「향수」와 기독교 사이의 관련성 및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기독교와 구원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이양숙, 「일제 말 북경의 의미와 동아시아의 미래 - 김사량의 「향수」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192면 참조.)

20) 하신애, 「제국의 시선과 식민지의 눈(들)-오태영의 『오이디푸스의 눈』(2016)을 통해 본 동아시아 연구의 향후 과제들-」, 『사이間SAI』,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6, 351-352면.

장은 “1932년 만주국 수립 이후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일본에게는 이 지역 아편 판매제도의 조속한 확립과 밀매아편의 단속이 시급하였다”²¹⁾고 지적한다. 화북지역²²⁾의 아편정책에 관해서도 “단순히 이 지역의 재원확보 차원에서만 추진된 것이 아니라 화중지역과 함께 중일전쟁기 일본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몽강정권의 유지 차원과도 관련이 깊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로 볼 때 아편,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²³⁾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사량이 북경 이주 한인의 전향 및 아편 중독(밀매) 문제, 아편 중독에 시달리는 중국인의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왜 기독교를 반복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는냐의 문제이다. 「향수」와 기독교 사이의 관련성 문제를 다룬 논의들은 기독교를 전향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도구로 평가하거나, 억압 당하는 식민지인의 회복을 기독교적 구원으로 귀결시킨다.

그중에서도 곽형덕의 논의는 유일하게 「향수」를 기독교의 『구약성서』에 제시된 구원에 관한 예언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김사량 문학과 기독교 사이의 관련성 연구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향수」와 기독교 사이의 관련성을 작품 전반으로 확장한 정도는 아니며, ‘전향’의 문제를 민족 구원을 위해 회개해야 할 문제로 해석한 것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향수」는 ‘전향’이라는 정치적 영역과 ‘기독교’라는 종교적 영역이 서로

21) 박강, 『20세기 전반기 동북아 한인과 아편』, 선인, 2008, 30면.

22) 화북 지역은 「향수」의 배경이 되는 북경(北京) 외에 천진(天津), 석가장(石家莊), 태원(太原), 제남(濟南) 등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23) 아편 밀매는 자본주의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제국이 아편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밀매를 막는 것을 자본주의 통제 양상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인들은 아편, 자본, 제국 모두에 의해 억압받는다라는 점에서 자본주의가 제국과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편은 오히려 일본 제국의 자본 확보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역인 채로 전향에 대한 내적 갈등²⁴⁾을 담아내는 동시에 국제주의로 나아가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작품 전반에 깔려 있는 기독교적 장치들의 의미를 좀 더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귀환을 예언하는 구약성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향수」를 읽어내는 곽형덕의 관점은 「향수」의 국제주의적 성격이 갖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의식과의 변별적 위치 규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김사량 문학 전체에서 기독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규정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수」에 활용된 모든 기독교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들이 전향 및 국제주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향수」의 기독교 관련 용어들의 맥락, 전면적으로 등장시킨 구약성서의 「예레미야」 및 「예레미야 애가」의 디아스포라 귀환 모티프, 전향을 둘러싼 조선적 기독교와 일본적 기독교의 보이지 않는 충돌 장면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향수」를 전향과 비전향 사이의 선택을 암시하는 텍스트로 읽기보다는 중일전쟁이라는 상황에 직면한 식민지인들의 사상적 비전을 기독교와의 관련성 속에서 제시하는 텍스트로 읽어 내하고자 한다.

24) 「향수」의 내적 갈등과 관련하여 가와카미 테츠타로(河上徹太郎)는 “반도출신의 작가가 감히 그 정당한 국가적 감정을 말하는 데도, 우고좌면(右顧左眄)하며 일부러 낮은 소리로 밖에 말을 할 수 밖에 없었나는 것이다. 확실히 그들의 사이에는, 우리 전향작가보다 더한 고뇌가 있음이 틀림없다”(河上徹太郎「小説の中の「私」-文芸時評-」(文藝春秋1941.8, 274-275쪽, 곽형덕의 「김사량작 〈향수(鄉愁)〉에 있어서의 ‘동양과 세계’-전향의 전제 조건을 둘러싸고, 『현대문학의 연구』 5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227면 재인용)고 했고, 이시다 에이지로는 “깊이 음미해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데가 남아 있음 역시도 부정할 수 없다. 작자의 애매한 태도가 작품의 이면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금일의 시대는 이러한 작자의 애매함이 용납될 수 없는 시대라는 것도 분명하다”(이시다 에이지로, 「7월의 소설」, 『신조』 1941년 8월호. 안우식의 『김사량 평전』 154면 재인용.)고 했다.

3. 경합하는 의식들: 민족과 제국의 기독교

「향수」는 친일과 앞서 언급했듯이 ‘친일과 저항’ 또는 ‘민족과 전향’이라는 경계에서 국제주의라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러 논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 다른 입장으로 갈리는 것처럼 작가는 민족주의와 전향 사이라는 애매한 위치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향수」에 대해 이경재는 노스탤지어라는 정념을 통해 “일제 말기 한국문학이 보여준 정치의식의 가장 섬세한 고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언급했지만, 정치의식의 고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통로로 기독교를 꼽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직접 자신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사량은 기독교를 하나의 출구로 삼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극히 정치적인 텍스트를 검열과 탄압이 가장 강력한 시기에 발표하기 위해 종교를 연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수」에서 이렇게 기독교의 위치를 가늠해보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적 요소가 표출되는 빈도가 높은 까닭이다. 「향수」의 곳곳에 등장하는 기독교적 표현의 횟수는 구약성서의 내용과 겹쳐 읽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40회 이상으로, 이경재가 의장처럼 박혀 있다고 언급했던 친일적 표현보다 훨씬 많다. 기독교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하느님’이나 ‘기도’ 등의 표현들도 자주 등장하지만 이현이 북경을 여행하는 동안 겪는 많은 상황들에서 원래 나아가려는 구원의 방향성에 장애를 일으키는 영적 방해 활동에 대한 암시적 표현들도 있다. 이는 「향수」가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기독교적인 색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세계관 내에서 사투를 벌이는 영적 주체들의 움직임 사이에서 정치적 방향을 노정하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향수」의 첫 장면에서 이현(李紘)은 북경행 열차를 탄 뒤에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서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현은 여기저기 짐작처럼 조용히 쓰러져 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한 채로 앉아, 애써 눈을 붙여보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상념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머릿속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갔다.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서 올라탄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 공연스레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다.²⁵⁾

‘검은 그림자’는 작품의 시작부터 등장하여 묘한 긴장을 일으키는 요소로서 이십여 년 전 이현이 여섯 일곱 살 무렵에 목격한 무서운 광경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제시되는 ‘기독교인 어머니와 누님’이라는 표현과 대립되는 화소다. 이현이 목격한 무서운 광경이란 창고 안에 숨어든 매형 윤장산이 수상한 사내들에게 발각될 것만 같은 상황을 가리키며, 이 때 이현은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다. 이는 가야 부부의 구원에 대한 첫 번째 기도로 제시된 것이다. 작품 전반에서 구원은 전향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이현의 이 기도는 전향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취학 연령임에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올리는 신앙적 습관에 대한 묘사와 ‘기독교인 어머니와 누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현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²⁶⁾에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현에게 ‘검은 그림자’가 붙었음을 언급하는 첫 장면은 이현의 머릿속이 예민해졌다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듯, 이현 또는 이현 집안의 방향성과는 다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검은 그림자’는 일차적으로 ‘대정(大正) 팔 년 삼월 사건’으로 명시된 3·1운동 참가자인 매형 윤장산을 체포하려는 일본 군경의 이미지와도 겹친다. 어린 이현의 기도는 상황적 맥락으로 보아 수상한 사내들로부터 매형 윤장산이 발각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인데, 이 때 수상한 사내들

25) 김사량, 「향수」, 『김사량, 작품과 연구1』, 김재용·곽형덕 편역, 역락, 2013, 147면.

26) “그녀 자신도 진취적인 초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까닭인지 모르겠으나”(「향수」, 앞의 책, 150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현의 어머니는 초대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으므로 이현은 3대째 기독교인이 된다.

의 실체는 일본 군경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북경행 열차에 잠복한 두세 명의 ‘이동경찰(移動警察)’도 ‘검은 그림자’라는 실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첫 장면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는 일본 군경이나 이동경찰과 같은 가시적·물리적 실체에 한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검은 그림자’를 이현의 심리적 불안감으로만 해석해도 「향수」 전반에 등장하는 기독교적 요소들의 빈도 높은 출현의 의미를 간과하게 된다. 「향수」에 제시된 기독교적 요소들이 그저 파편적인 수사(修辭)가 아니라면, ‘검은 그림자’ 또한 이현의 집안과 이현이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방향성에 장애가 되는 포괄적인 움직임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현의 첫 번째 기도 장면 이후에 제시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장면이다. ‘윤장산의 옛 제자 박준(朴俊)’의 갑작스런 출현은 이현이 북경행을 결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여기서도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다”라는 똑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박준의 신기한 출현 이후,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거의 재기 가망성이 없어 보였다. 때때로 한밤중에조차 미친 사람처럼 일어나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누님 부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흐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덧없는 소망이라는 것을 알자,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첫 손자 무수만이라도 곁으로 불러오라고 재촉하는 것이었다. 그녀 자신도 진취적인 초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까닭인지 모르겠으나 봉건적이고 고루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된 후에도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 계몽운동에 종사해 왔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왕년의 기백도 약해져 일종의 체념의 경지에 도달했다고나 해야 할까. 지금은 단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생각대로 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²⁷⁾

27) 앞의 책, 150면.

위의 인용문에서는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다” 외에도 이현의 어머니가 초대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왕년의 기백”, “모든 것이 하느님의 생각대로 될 뿐”이라는 표현은 이현의 어머니가 가진 신앙이 약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어머니의 신앙을 이토록 견고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들 이현에게 가야 부부를 구제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자 관계는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다”라는 공통된 신앙 관습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현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장면은 박준의 출현과 깊이 관련되는데, 이 장면은 박준의 정치적 방향성이 6년 간의 고민 끝에 전향으로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의 전향 의식은 3·1운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 파고 들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박준의 출현 이후 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한밤중에조차 미친 사람처럼 일어나서” 기도하는 변화를 일으킨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현의 어머니 신앙의 변화는 예전의 뜨거웠던 초대 기독교 집안 사람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약한 부분의 유혹을 받고 신앙이 변질되는 것으로까지 보인다.

이현의 어머니는 박준의 전향 설과 이후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딸에 대한 애정의 불꽃”²⁸⁾ 때문에 이현이 “누님 가족을 새로운 생활로 구해내려고 하는 마음”을 수용하고 북경행을 허락하게 된다. 여기서 이현이 말하는 새로운 생활로의 구원이란 원래부터 이현의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준의 갑작스런 방문 이후부터 전향에 대한 그의 결심과 가야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이현의 어머니에게로 스며들었고, 병중에도 가야를 만나게 해달라고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를 본 이현은 마침내 북경행을 자청했던 것이

28) 「향수」, 앞의 책, 151면.

다.

박준이 이현의 어머니와 이현에 대해 끼친 영향력의 핵심은 독립운동을 통한 민족 구원론을 전향을 통한 구원론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현의 어머니나 가야의 계몽주의 운동, 그리고 윤장산의 3·1운동 참여 행보는 이현의 집안이 민족주의 기독교 집안임을 보여주는데, 박준은 가야 부부에 대한 새로운 소식과 전향에 대한 의지를 전함으로써 이현의 집안이 견지하고 있는 원래의 민족주의적 기독교 정신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조선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자는 민족주의 기독교 정신에는 유일신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선택과 구원을 조선에 적용하는 은혜의 전유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향 구원론에는 변질된 기독교의 침탑에 서 있는 전향이라는 우상이 숨겨져 있다. 이는 천황제가 구원의 주체로서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보면 첫 장면에서 이현의 북경행 열차에 함께 올라 탄 ‘검은 그림자’는 조선의 민족주의적 기독교가 지닌 저항의 정신을 붕괴시키고, 북경으로 이주한 조선인의 남아 있는 독립운동 노선마저 변질시키기 위해 이현의 머릿 속에 붙은 ‘전향 구원론’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후반부에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적 차원으로 소개되고 있는 옥상열의 전향 구원론은 기독교 의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현의 전향 구원 의식과 다르다. 옥상열이 전향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식은 민족주의자의 변질이라 할 수 있는 반면, 박준이 이현의 집안에 전향의 씨앗을 뿌린 이후 생성되는 전향은 독실한 초대 기독교 가풍의 바탕 위에 일본 제국주의가 준동하는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즉, 「향수」에서 전향은 단순히 정치적 의미에서의 변질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적 틀이 함께 삼입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향을 종교적 틀에서 고려할 경우, 이현 집안의 민족주의적 기독교 가풍에 침투한 전향 의식이 과연 모순 없이 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민족주의적 기독교 가풍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

향을 하게 되면 기독교적 정체성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 기독교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황제를 정치·문화적으로 인정하는 일본적 기독교²⁹⁾를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여기서 기독교를 유지했다는 것은 「향수」에서 이현이 이미 전향했거나 전향의 기로에 선 인물들 사이에서 여전히 기독교적 구원을 붙잡은 채로 민족과 세계주의 모두를 담고 동아 및 세계로 나아가는 결말의 모습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물론 이 복합적인 의미의 뜻대 꼭대기에는 박준이 뿌려둔 전향의 씨앗, 즉 천황제가 도사리고 있다. 다만 일본적 기독교의 형성 과정을 고려할 때 이는 정치적·종교적으로 완전히 변질되었다고 확정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양현혜는 제국 헌법 28조의 “일본 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또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교의 자유를 갖는다”³⁰⁾와 같은 규정이 결국 모든 종교는 국가체제를 넘어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라카미 시게라(村上重良)는 국가신도가 “불교, 기독교, 신흥 종교 등 일본의 모든 종교 위에 초종교로서 군림했다”³¹⁾고 지적한다. 양현혜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는 210년 간 금지된 종교였는데 1872년 요코하마에 최초의 일본 개신교회에 설립되면서 우상 숭배 금지 원칙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일본 내에서 많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1891년 1월 9일 동경제일고등학교(동경대학 교양학부의 전신) 시업식에서 행해진 「교육칙어」 봉독식에서 (...) 「교육칙어」 앞에 예배적 최경례를 하지 않고 가볍게 머리만 수그렸”³²⁾던 ‘우치무라 불경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

29) “일본에서 기독교는 천황교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성서 해석은 반드시 “일본적”인 것이어야 했다. 이는 일본이라는 말나무에 기독교를 접목하여 일본인들 심성에 맞는 일본적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우치무라 간조가 주장한 “무사도에 접목된 기독교”였다.”(김산덕, 『천황제와 일본 개신교』, 새물결플러스, 2020, 118면.)

30) 양현혜, 『근대 한·일 관계사 속의 기독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23면.

31) 村上重良, 『現代宗教と政治問題』.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78, 98면.(앞의 책 24면 재인용)

와 국가의 충돌 문제로 발전³³⁾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본 기독교는 당시 일본 기독교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우에무라 마사히사(植村正久)를 통해 「불경죄와 기독교」라는 글을 『복음신보』에 발표한다.

천황의 사진을 향해 종교적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이는 사람의 양심을 속박하고 신교의 장유를 빼앗는 것이다. 제국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사진에 존경을 표하고 친필에 배례하는 것은 꼭 그러한 의미로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단지 정치상 임금에 대한 예의로서 하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종교상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 사교, 정치상의 득실이폐(得失利弊)의 문제이다.³⁴⁾

양현혜는 우에무라의 글에 대해 “그의 이분법적 발상은 ‘신사 비종교론’이라는 정부의 트릭에 기독교가 타협해가는 단초를 암시했다³⁵⁾고 지적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타협이다. 즉, 일본 개신교는 기독교적 바탕 위에 정치·문화적으로 천황을 인정하는 색깔을 띤다. 이러한 노선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와 신앙 영역의 각각 다른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혼합 신앙³⁶⁾의 성격을 띠게 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혼합 신앙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내적 갈등을 겪지만 이후 교묘하게 습합되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안착된다. 이현이 박준을 만나

32) 앞의 책, 27-28면.

33) 앞의 책, 28면.

34) 양현혜에 따르면 우에무라 마사히사는 『복음신보』에 「불경죄와 기독교」를 게재하고 20년 후에 그 해설을 「복음신보 20주년」에 위 인용문과 같이 쓴 것이다. 앞의 책, 30면.

35) 앞의 책 31면.

36) 혼합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유일신 여호와에게 정별 당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김사광은 이를 포착하여 구약성서의 「예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작품 속에 원용한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의식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그의 전향 의지와 가야의 소식을 듣고 구제 의지를 다지며 북경에서 가야와 옥상열과 아편굴로 표상되는 식민지의 처절한 현실을 목도하여 국제주의적 전향 노선을 펴는 과정도 개신교가 천황제와의 타협안 내에서 일본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과 닮아 있다. 다만 「향수」가 함의하고 있는 김사량의 내적 갈등에 주목한다면 그가 「향수」를 통한 일본적 기독교로의 완전한 선회 의식 표출을 의도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야 할 듯하다. 다만 그것은 기독교적 요소들로 구성된 일종의 중의적 장치³⁷⁾로서, 본 의도에 대한 연막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현이 고려청자와 이조백자를 북경의 유리창(琉璃廠)에서 사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면도 「향수」의 전향을 정치·종교적으로 겹겹이 쌓은 복합적 의미들 속에서 좀 더 섬세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판단의 유보는 이현의 어머니에 대한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박준에게 “윤장산 선생님 부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³⁸⁾라는 말을 듣고 가야를 보기 위해 전향을 암시하듯 이현의 북경행을 허락했지만, 그 직후에 다시 온전한 정신이 되어 “모든 것을 다 하느님의 은혜에 기대라고 말이다. 또한 장산이나 가야는 어쩔 수 없겠지만 무수만이라도 데리고 돌아오도록 하렴”³⁹⁾이라 말하며 갈등하는 내면

37) “이번 탄압은 기독교 신자를 목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의 어머니와 누이도 당했습니다.” 하고 김은 내게 설명해주었다. (...) “귀축미영(鬼畜米英)의 종교라는 말이지.” “에에, 일본의 신도(神道)에 반대하면서 적성(適性)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꽤심한 일이죠……”(안우석, 『김사량 평전』, 문학과지성사, 2000, 145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사량은 일제의 조선 기독교 핍박을 염두에 두었으리라 사료되므로 「향수」에서 기독교를 전향 의지와 섞어 연막 효과를 내고자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38) 김사량, 「향수」, 『김사량, 작품과 연구1』, 김재용·곽형덕 편역, 역락, 2013, 150면. 박준의 이 말에 대해서는 멀리서도 보살피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후 전향에 관한 서사가 증점적으로 나오는 작품의 흐름으로 볼 때 전향을 시켜 안전하게 조선 땅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39) 「향수」, 앞의 책, 151면.

심리를 보여준다. 「향수」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 이는 신약성서의 주요 서신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두고 말한 ‘곤고한 사람’⁴⁰⁾을 상기시키며, 더 근원적으로는 예수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두 마음 사이에서 고뇌하며 기도하는 장면⁴¹⁾에 연결되기도 한다. 김사량이 「향수」보다 1년 1개월 먼저 발표한 「천마」(1940.6)에서 “그때 그는 자신의 모습에서 느닷없이 이렇다 할 연관도 없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자신에게도 그러한 순교자적인 비통한 운명을 느끼려고 했다”⁴²⁾와 같이 주인공 현룡의 상황을 예수에 빗대어 표현한 전적⁴³⁾, 그리고 앞서 언급한 「향수」의 수많은 기독교적 요소들⁴⁴⁾은 초대 기독교 집안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이현과 그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성서의 ‘곤고한 자’ 모티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곤고한 자’ 모티프는 가야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현은 북경행 열차 안에서 설잠을 자다가 꿈 속에서 옛날과 달리 검푸르게 변해버린 가야의 얼굴을 본 후 가야의 옛 모습을 회상하는데, 가야는 아름다운 마을에서 계몽사상을 보급시키며 아름다운 정원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며, 아름

40)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신약성서』, 『로마서』 7:21-25)

41)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희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신약성서』, 『누가복음』, 22:39-42)

42) 김사량, 「천마」, 『김사량, 작품과 연구2』, 김재용·곽형덕 편역, 역락, 2013, 39면.

43) 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전계성, 「김사량 소설의 기독교적 트랜스내셔널리즘 -「빛속으로」, 「천마」, 「광명」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9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5, 233-234면.

44) 특히 「향수」에서 예수와 관련된 부분은 2장에서 제시되는 “월계수관을 머리에 쓰고 볼에 피를 뚝뚝떨어뜨리고 있는 예수의 액자”(158면)이다.

다운 것을 좋아하는 여자로 묘사되어 있다.

누님은 나라를 떠날 때까지 생활의 고통과는 도무지 거리가 먼, 대단히 행복한 생활을 했던 것이다. 시집가서도 희망과 정열에 불타 남편 장산과 함께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학교(私學敎)를 경영하며 아이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계몽사상을 보급시키는 일을 했다. (……) 현은 어머니를 따라 누님이 있는 곳에 간 적이 있었다.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지붕에는 큰 호리병박이 달린 줄기가 기어 올라가고 정원에는 복숭아와 은행나무가 뺨뺨하게 서 있고 고량다발로 짠 벽에는 색색이 들장미가 피어 병풍처럼 지수를 놓고 있었다. 그 앞 화단에는 봉산화나 금잔화, 양귀비, 채송화 등이 한가득 흐르러지게 피어있었다. 누님은 이 정원에서 나비처럼 뛰놀고는 했다. 그 당시 가야가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던 온화한 얼굴이 어린 현의 마음속에는 인상 깊어 뇌리에 박혀 있었다. “조선의 어떤 집에도 이렇게 꽃이 한가득 필 무렵에 하느님은 반드시 은총을 내려 주시겠지요.” 누님 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것을 좋아했으며, 명상적이며 마음이 약한 여자였다.⁴⁵⁾

이 부분에서는 특히 정원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동방의 에덴 동산⁴⁶⁾을 상기하게 한다. 직접적인 묘사의 대상들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에덴 동산 창설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이미지와 가야 및 정원이 지닌 아름다움의 이미지는 상당히 유사하다. 정원에서 뛰놀던 가야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점에서도 위의 장면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가야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하

45) 김사량, 「향수」, 『김사량, 작품과 연구1』, 김재용·곽형덕 편역, 역락, 2013, 154-155면.

46)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구약성서』, 「창세기」, 2:8)

느님의 법을 따르는 상태이다.

그러나 「향수」 서사의 두 번째 장은 아편 중독자가 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진 가야를 묘사한다. 가야는 원래 ‘하느님의 은총’(159, 161)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시온의 여자’(158)였지만, 북경으로 이주해 온 이후 혈색을 잃은 검은 얼굴로 ‘피흘리는 예수의 액자’(158)와 ‘마리아 주상’(158)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이현에게 보이게 된다. 이는 거룩한 신과 헤어날 수 없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곤고한 자’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가야의 내부에서 싸우는 두 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동생 이현이 ‘아편 중독을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다음의 상황이다.

“누님 부탁이에요. 그만 두시죠. 이런 생활은!”

“나보고 아사(餓死)하라고 하는 것이니?”

그녀는 경련을 일으킨 듯이 떨면서 외쳤다.

“아사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인지도 몰라요. 이 일은 우선 하느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라고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를 쥐어 짜내며, 가야가 별떡 몸을 일으켜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깔깔거리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다. 제멋대로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핏빛을 띠는 두 눈이 현을 움츠러들게 했다.

“가련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에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알바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자들을 어찌 한다고 하여도……”

그러나 그녀는 이미 몹시 기력을 잃어버린 듯, 그 장소에 다시 쓰러져서 오열을 계속했다.

“아... 그렇지만 현아, 부탁할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다오, 기도해 다오.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부탁해 주거라…….”⁴⁷⁾

‘하느님의 허락’이라는 표현에 대한 가야의 반응은 마치 다른 인격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를 쥐어 짜내며”, “벌떡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보”며, “갈갈거리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핏빛을 띠는 두 눈”은 처음 이현이 가야의 집을 들어설 때 보았던 “기분 나쁜 적갈색 빛” 대문의 느낌처럼 섬뜩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가야는 구약성서의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을 내뱉고 난 후 기력을 잃은 듯 쓰러져 다시 오열한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는 ‘내 백성의 멸망’과 ‘쓰레기 같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아편굴에 있는 중독자들의 상황이 멸망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멸망’과 ‘쓰레기’라는 단어는 가야를 가리킨다. 그래서 다음 순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고 이현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신약성서』의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아와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아가 서로 경합하는 상황을 깨닫고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⁴⁷⁾

가야가 원래 결국 악령에 사로잡힌 듯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성서의 구절을 읊고 나서 아편에 중독된 현실을 직시하며 중보

47) 「향수」, 앞의 책, 189면.

48) 『신약성서』, 「로마서」, 7:21-25.

기도를 부탁하는 일련의 과정은, 가아가 바울과 같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곤고한 자’의 형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울과 가아를 동등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아 집안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과 계몽운동 참여 등의 기독교 선교적 활동 이력이 묘사된 것을 볼 때, ‘곤고한 자’ 모티프에는 김사량의 창작 의도가 충분히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곤고한 자’ 모티프의 선과 악은 단지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과 ‘아편에 중독되 것’ 사이의 갈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사량은 ‘곤고한 자’의 선악 대비 모티프를 훨씬 더 큰 그림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작품 초반부에 등장시킨 ‘검은 그림자’와 ‘다양한 그림자’의 구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자신에게 검은 그림자가 따라붙은 듯한 마음 속 먹구름도 사라졌다. 그 대신 선잠을 자는 중에도 그의 뇌리에는 다양한 그림자가 끊임없이 오가고 있음을 의식했다”⁴⁹⁾라는 언급 가운데 ‘검은 그림자’는 박준의 방문 이후 이현의 집 전체에 드리워진 ‘전향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향력에 따라 이현은 북경행 열차 안에서 ‘한 사람의 완전한 일본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느끼고 ‘황군의 위력으로 평정된 북지’를 생각하며 ‘동아(東亞)의 여명을 비추는 건설적인 시기’와 ‘향상’을 떠올린다. 그러나 ‘다양한 그림자’는 이현이 선잠을 자는 동안 가아가 지나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비틀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환상으로 다가오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현이 환상 속에서 본 가아의 모습이 실제 북경에서 가아를 만났을 때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사량이 의도적으로 꿈의 예언적 성격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나아가 「향수」를 영적 서사를 포함하는 텍스트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49) 「향수」, 앞의 책, 152면.

4. 세계주의의 실체: 디아스포라 귀향 의식

이현의 “이렇게 해서 나는 훌륭한 동아의 한 사람, 세계의 한 사람이 되는 것”⁵⁰⁾이라는 고백에서 드러나는 「향수」의 세계주의는 전향을 그 기본 조건으로 한다. 박준이 전향 의지를 다진 채 이현의 어머니를 방문한 뒤 이현은 가야를 만나기 위해 북경행을 결심하고, 북경행 열차에서 바라보는 광야의 풍경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세계를 향한 발돋움을 확인하며, 전향 서사의 대미를 대동아공영권을 암시하는 말로 장식하기 때문이다. 전향은 ‘검은 그림자’라는 무형의 의식으로 표상되면서 가야로부터 오는 ‘다양한 그림자’와 대립한다. ‘검은 그림자’는 박준의 결심에서 시작된 전향의 정치성을 의미하는 반면, ‘다양한 그림자’는 가야 측에서 지속되고 있는 민족적 구원의 움직임이 정체된 채로 전향과 향수 사이에서 아편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양한 그림자’는 비록 정체된 움직임을 표상하지만 이현으로 하여금 반복적인 꿈의 예시를 통해 민족성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검은 그림자’, 즉 전향의 유희를 막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이현의 어머니의 두 마음, 가야의 두 마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현에게도 그 갈등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박준의 영향으로 가야를 보러 가기로 마음 먹는 것부터 시작하여 광야를 보며 옛 고구려 병사들의 질주와 북지를 평정한 황군의 위력을 동시에 떠올리는 것, 가야와 북해 호수를 바라보며 향수와 구원 의식을 느끼면서도 이토 소위와의 해후에서 자연스레 일본어가 튀어나오는 것, 특무기관에서 일하는 옥상열을 경계하면서도 그의 향수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 등은 결국 이현이 제국과 조선이라는 두 내셔널리티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이다.

이현과 옥상열의 만남에서도 ‘검은 그림자’와 ‘다양한 그림자’의 대립 구

50) 「향수」, 앞의 책, 192면.

도는 계속 된다. 옥상열의 전향이 확인된 가운데 이현은 가야의 집에서 옥상열과 두 번째로 조우하는데, “안방의 처마 밑에서 검고 큰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다”고 묘사된다. 여기서 ‘검고 큰 그림자’는 앞서 제시한 ‘검은 그림자’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박준의 전향과 옥상열의 전향이 같은 위치에 놓인다는 것을 가리킨다.

(가) 박준의 전향

저는 형무소 안에서 급변하는 세상사를 응시하면서 육년간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이 마음을 다져먹고 선생님을 구하러 북경으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⁵¹⁾

(나) 옥상열의 전향

난 자네들에게 사상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뒤쳐져 있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다네. 처음에 난 단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조선인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그래서 나는 자네 매형인 윤 선생님의 지도라면 죽을 각오로 충실히 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지. 그러나 우리들의 꿈은 너무나도 무참하게 배반당하고 말았다네. 만주 사변이 일어나 우리들이 쫓겨난 때부터 내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네. 여기저기에서 일본 군대의 위세 높은 행진 나팔소리가 울려 퍼져 왔네.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네. 사랑하는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길이 옳은 것인가 하고, 더욱 더 비참해지는 것을 나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겨우 자네들의 사고방식에 도달했다네⁵²⁾

(가)에서 박준이 ‘선생님’, 즉 윤장산을 구하려고 마음 먹은 것과 (나)에

51) 앞의 책, 150면.

52) 「향수」, 앞의 책, 166-167면.

서 옥상열이 ‘조선인들을 위해 가장 좋은’ 방향을 북경에서의 독립운동으로부터 ‘자네들의 사고방식에 도달’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결국 ‘조선인에 대한 사랑’이라는 명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김사량은 이들의 정치적 전향만이 당시 상황에서의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 해답은 이현과 가야 사이에서만 생성되는 새로운 방향성인데, 다음 세 가지 문제적 장면에서 드러난다. 첫 번째는 가야와 이현이 북해 호수에 갔다가 이토 소위와 조우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유리창에서 고려청자, 이조백자, 훼손된 질그릇을 사는 장면이며, 세 번째는 가야가 아편 밀매를 통해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화폐로 이현의 귀향 열차표를 사는 장면이다.

첫 번째 장면은 북해공원의 흰색 원탑에서 북해 호수를 바라보며 향수를 느껴왔던 가야가 동생 이현에게 그녀 자신의 향수를 전이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락 속에서 다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 “누님이 내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눈물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이현이 가야의 향수를 보고 희망을 느끼는 장면으로서 향수와 구원 사이의 연결 고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 메커니즘은 일본 군인들의 등장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진다. 가야는 ‘향수-구원’ 의식에서 아편 밀매라는 죄의식으로 돌아와 이현에게 인사도 못한 채 황망히 그 자리를 벗어난다.

이는 김사량이 작품 속에서 ‘묘한 일’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향수-구원’과 ‘일본 군인’의 대립 구도를 나타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현이 일본 고등학교 시절에 마음을 나눴던 일본인 이토와 조우하는 장면이 가야와 이현 사이에 피어올랐던 ‘향수-구원’ 의식을 해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현이라는 복합적 국가정체성을 지닌 인물을 완전한 일본인과 융화된 인물로 등장시킨 것, 그리고 그러한 이토 소위로 인해 가야가 ‘향수-구원’에서 멀어지는 구도를 마련한 것은, 트랜스내셔널리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두 내셔널리티가 어떠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

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한 사람의 완전한 일본국민”이었던 이현은 두 번째 문체적 장면에서 민족의 기억으로 완전히 각성된다. 원래 이현은 박준의 의식에 따라 가야를 설득하여 또 한 사람의 일본국민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나, 아편굴로 대표되는 민족들의 고통을 보았고 유리창에서 민족 문화의 고통스런 신음을 듣고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즉 유리창에서 고려청자, 이조백자, 훼손된 질그릇을 사기 위해 가야를 구제하는 데 쓰라고 어머니께 받은 삼백 원을 모두 쓴 것이다. 여기서 이현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은 “무수히 많은 혼의 신음소리”⁵³⁾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는 가야의 신음소리로 대치된다. 결국 고려청자와 이조백자를 사는 행위는 가야의 구원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현이 가야를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으로 본 것과 더불어 주목할 것은 옥상열의 향수에 대한 언급과 고향에 있는 아들 내외를 위해 준비한 신발이다. 그는 민족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계속 고민했고, 그 결과는 일제에 협조하여 특무기관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민족에 대한 향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결국 ‘향수’라는 의식의 차원에서 옥상열은 가야와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전향을 의미하는 ‘검은 그림자’가 민족적 향수와 구원을 의미하는 ‘다양한 그림자’와 합쳐지는 것을 말하며 이현이 가야와 옥상열 모두를 받아들이는 실제적 움직임으로 드러난다.⁵⁴⁾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장면은 일본 제국으로 인해 통용하게 된 여러 종류의 화폐, 그리고 중국과 조선 민족의 아편 소비에 의해 가야의 손에

53) 앞의 책, 177면.

54) 옥상열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박준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전향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옥상열의 전향에는 박준과 같은 전향의 회로가 똑같이 지나가지만 옥상열의 서사는 민족에 대한 향수와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 물론 그것은 전향자 모두의 공통된 변명 방식이기도 하지만 전향 앞에 선 여러 인간 군상들을 볼 때 박준과 옥상열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들어온 그 화폐가 이현의 귀향 열차표 구매에 쓰이는 장면이다. 아편은 가야의 생계유지 수단인 동시에 그녀를 피폐함으로 몰고 가는 필요악이며, 이현의 귀향 기차 샅을 지불한 돈의 원류인 동시에 일본 제국의 식민지 자본 확보 수단이 된다. 이러한 아편의 다층적 의미망 속에서는 이현이 가야를 아편으로부터 탈출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제국주의로부터의 탈출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⁵⁵⁾

열한시 기차가 십분 정도 후에 출발하려고 하는 아슬아슬한 때였다. 그래서 개찰구 쪽으로 뛰어들 듯이 달려갔는데, 그는 그 한 발자국 바로 앞에서 갑자기 멈추어 섰다. 마침 그 개찰구에서 지나 복장을 한 가야가 허리를 굽히고 혼자 표를 사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니 앞쪽에 십전이나 오전 정도에 상당하는 몽강권(蒙疆券)이라든가 법폐(法幣) 만주권(滿洲券) 연은권(聯銀券) 등의 지폐를 여러 개 겹쳐서 내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 뒤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이 돈은 저 아편 소매를 해서 콜리나 차부, 순경(巡警), 부랑민, 걸식자 등의 피와 함께 착취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⁵⁶⁾

가야가 몽강권, 법폐, 만주권, 연은권을 꺼내어 기차표를 구입하고 이를 통해 이현이 귀향하게 되는 장면에는 몽골, 중국, 일본, 조선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주의적이다. 이현은 “내 체내에도 이 가치만큼의 지나인의 피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⁵⁷⁾이라고 말하며 구원 의지를 다지는 이 장면은 여러 국가의 화폐가 등장하고 인물들의 정체성이 복합

55) 가야의 아편 밀매 행위를 “과시즘의 현실에 대한 부적응을 선언하는 저항”(김주리, 「아편굴의 조선인 - 일제강점기 소설 속 아편 밀매업자 표상 연구」,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174면.) 행위로 규정하는 논의도 있으나, 이 글은 아편으로부터의 탈출이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에 가깝다고 본다.

56) 「향수」, 앞의 책, 191면.

57) 앞의 책, 192면.

적이라는 측면에서 표면적으로 트랜스내셔널리즘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동아의 한 사람”은 개작 「향수」에서 “세계의 한 사람”으로 확대되었다는 곽형덕의 지적만 보더라도 일본 제국주의가 추구하는 대동아공영을 초월하기 위해 개작을 단행한 김사량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주의 노선은 「향수」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구원 의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을 준다. ‘홀륭한 세계의 한 사람’에서 ‘홀륭한’이라는 단어는 아편 소매를 통해 “피와 함께 착취한” 돈으로 귀향 기차를 타는 이현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구를 넣을 경우 김사량은 기독교라는 중의적 장치에 의해서 검열을 피하는 동시에 귀향의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동아공영과 세계를 향한 의지는 천황제와 결합한 일본적 기독교의 방향성과 결부되는 반면에, 기독교와 귀향 의식은 성서 「예레미야」 및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나는 홀륭한 동아의 한 사람, 세계의 한 사람이 되는 것”⁵⁸⁾이라는 언급은 일본 제국주의의 이상과 완전히 일치하지만, 이와 동시에 김사량은 구원과 귀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절망 따위를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아요. 누님과 매형이 재생하는 길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곁에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그래도 너희만은 멀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가 죄 없다고 하지 않으나, 그래서 범대로 벌하였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누님, 우선 하느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빛이 넘치는 새로운 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⁵⁹⁾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는 아편’이라는 이현의 말에 대해 가야가 히스테

58) 앞의 책, 192면.

59) 「향수」, 앞의 책, 189-190면.

력한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현은 기도하며 「에레미야 애가」 30장 11절을 읊고, 마침내 가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하느님께 구원 받는 것’과 ‘빛이 넘치는 새로운 생활’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도 중의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김사량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빛’은 천황 상징 가능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전형적인 기독교적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귀향 의식은 이현이 옛 그릇들의 호소 소리를 환청으로 듣는 장면에서 극에 달한다.

“우리들은 외롭고 약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억눌려서 숨이 막혔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역시 우아하고 순정이 가득하며 근심 많은 조선 사람들의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러한 마음과 눈으로 따뜻하게 지켜 줄 사람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데리고 가주세요.”⁶⁰⁾

옛 그릇들의 귀향은 북경에 있는 가야와 옥상열로 대표되는 모든 조선인들의 꿈이다. 여기에는 조선인이라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세계인이 공생할 수 있는 곳이 북경의 아편굴이 아니라 조선 땅이라는 의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이현의 이상 속에서는 북경의 아편굴이 존재하지 않으며 몽강권, 법폐, 만주권 등이 혼용되는 세계가 텅 비어 있다. 이현에게는 다만 그들이 어둠의 아편으로부터 벗어나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며 모든 민족이 융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상적 모습은 없다. 이현이 가야와 윤장산에 대한 구원 의지를 보이는 그 순간에는 박준이나 옥상열이 강조하던 전향이라는 정치적 의식이 뒤로 물러나며 모든 것의 원점이 되는 ‘귀향’이 전면화된다.

김사량의 「빛 속으로」나 「광명」에서는 내선일체의 융화를 휴머니즘의

60) 앞의 책, 191면.

차원에서 실현하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기에 ‘제국주의를 초월하는 기독교적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평가가 가능하였으나, 「향수」의 경우 ‘귀향 의식의 전면화로 인해 일제의 대동아공영권을 비껴가는 세계주의 성과가 그 핵심적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귀향은 확고한 하나의 국가 또는 민족을 향한 움직임이지 소속 국가나 민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초국적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향수」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디아스포라 의식이다.

곽형덕은 “내가 너의 곁에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그래도 너희만은 멸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가 죄 없다고 하지 않으나, 그래서 법대로 벌하였다”라는 「향수」의 성서 구절이 「예레미야」 30장 11절의 변형임을 밝혀내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흘렸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⁶¹⁾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소명(1장), 유다의 심판(2~6장), 유다의 이상 숭배(7~10장), 유다의 언약 배반(11~13장), 가뭄의 재앙(14~15장), 유다의 죄(16~17장), 토기장이 예언(18~20장), 유다 왕과 선지자에 대한 예언(21~23장),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24~25장), 성전 설교(26장), 유다에 대한 경고(27~29장), 위로의 책(30~31장), 예루살렘 포위 중의 예레미야(32~38장), 예루살렘 함락 후의 예레미야(39~45장)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⁶²⁾

이 가운데 김사량이 「향수」에 제시한 것은 30장 11절로서 ‘위로의 책’

61) 『구약성서』, 「예레미야」, 30:11.

62) 박재갑, 『예레미야(애가) 강해』, 좋은 땅, 2010, 8~10면 참조.

에 해당된다. 일차적으로 이현은 가야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위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및 언약 배반에 따라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는 징계에 대한 예언서이다. 징계의 주요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서 「향수」의 전향과 맞물린다. 서사 전반에는 전향을 지향하는 듯한 뉘앙스가 곳곳에 드러나고 주인공 이현마저도 ‘완전한 일본국민’이라고 제시되는 「향수」의 사정으로 볼 때, 여호와 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 서사는 전향이라는 명에서 자유롭지 않은 「향수」의 모든 인물들에게 적용 가능하다. 즉, 「향수」는 유대인의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과 귀향 의식에 견줄 수 있는 것이다.

“너를 흘었던 그 모든 이방”에서는 여호와와의 징계 방식이 타국으로의 추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때 ‘흩어짐’은 ‘디아스포라’의 어원에 포함된다. 맥스 디몬트는 “일부 역사가는 디아스포라가 첫 번째 유다 왕국의 멸망과 그 후의 바벨로니아 포로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포로 생활’과 ‘디아스포라’ 사이에 개념적 차이가 없어진다”⁶³⁾라고 지적하지만 김사량이 「향수」에 원용된 「예레미야」의 징벌과 위로 모티프는 박준과 옥상열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주인공 이현의 민족의식 자각을 통해 이중언어자의 역전향(逆轉向)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바벨로니아에 머물고 귀향하지 않은 유대인의 의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귀향 의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복수 국적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어느 하나의 국가에 매이지 않고 세계주의를 표방하는 트랜스내셔널리즘과 변별된다.

내선일체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슬로건을 기독교를 통해 비껴가며 제국이 원하지 않는 진정한 용서와 용화를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구현해 낸 것이 「빛 속으로」와 「광명」이라면, 「향수」는 표면적으로는 대동아공영을 지

63) 맥스 아이작 디몬트, 『책의 민족 유대인 디아스포라 4천 년의 역사 읽기』, 교양인, 2019, 178면.

지하고 그것을 세계주의로 비껴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이면에 디아스포라 의식을 담지하고 있다. 이러한 귀향 의식은 표면상 트랜스내셔널리즘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지극히 내셔널리즘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더더구나 이현의 의식은 중층적이어서 일본적 내셔널리즘과 조선적 내셔널리즘이 뒤섞인 채로 기독교와 결합되어 있다. 이현의 하느님은 표면적으로 정복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제국의 하느님이면서, 그 이면에 조선인이라는 제국의 포로를 조선으로 귀환시키는 하느님이다. 즉, 전향 의식과 귀향 의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때 귀향 의식은 조선 땅으로의 이동과 그에 따른 일제 협력의 의미하지는 않으며 진정한 조선적 내셔널리즘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적 기독교라는 연막을 통해 중층적 의미의 하느님을 배치하고 세계주의 속에 내셔널리즘을 은폐하는 전략이다. 이로써 「향수」는 검열을 피하는 동시에 ‘조선인으로 깨어 조선으로 돌아가자’는 민족의식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5. 마무리

김사량은 왜 전향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종교의 문제, 그중에서도 기독교의 영성과 결부시키고 있는가. 이는 「빛 속으로」나 「광명」에서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지향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본디 기독교적 바탕 위에 성장한 김사량의 어린 시절을 추정해 본다면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서 전향은 단순히 정치적 관념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김사량 문학의 종교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아 통합적이고 일원적인 ‘단 하나의 기독교’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향수」에 나타나고 있는 전향의 복잡한 문제를 정치적 전향으로 단순화할 우려가 있다. 기독교적 정체성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전향이 더해진 것으로 보기

에 「향수」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기독교적 요소들에 대한 의미는 대폭 축소되거나 수사적인 장치로만 이해되기 때문이다.

「향수」의 기독교적 색채는 대단히 노골적으로 드러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인공 이현이 일본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다. 조선의 기독교는 천황제 중심으로 일본화된 기독교가 아니었기에 탄압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향수」의 기독교적 요소는 일본적 기독교의 이미지를 획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서사의 중핵으로 꼽히는 전향 서사의 피날레가 ‘훌륭한 동아의 한 사람, 세계의 한 사람’으로 장식되고 있는 것 또한 그의 종교가 과연 민족적이고 조선적인 기독교인지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박준에서 시작된 전향 의식이 가야와 장산의 타락상을 거쳐 옥상열의 전향 의식으로 나아가는 흐름은, 그 전향 의식이 가야와 장산을 설득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장치들이 이현의 ‘거꾸로 된 전향’ 의식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치밀한 전략임을 여러 장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수」를 단지 일본적 기독교를 연막으로 삼은 저항 문학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김사량의 전략을 실현하는 데 쓰인 이현이라는 인물은 전향 서사의 대표적 인물인 박준, 옥상열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현은 표면적으로 박준의 결의에 찬 전향 의식을 듣고 북경행을 선택하여 가야 부부를 데려오려 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옥상열의 민족을 향한 사랑을 듣고 조선에 남아 있는 아들 내외의 결혼 선물 전달 부탁에 응하지만 특무기관에서 일하는 그에 대해 경계를 완전히 푼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현은 독립운동 이력이 있는 전향자와 질적으로 다르다.

이현은 이미 일본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일본인 죽마고우가 있으며 동경제국대학의 학생으로서 기독교적 성장 배경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완전한 일본국민’이라 여기는 인물이다. 옥상열이 이런 이현에 대해 ‘새로운 시대에 태어나 새로운 사고방식 하에 자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두 인물의 차이를 분명히 부각시킨다. 옥상열이 전향 후 일제에

협조하여 특무기관에서 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꿀 수 없는 이현과의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현이 이토 소위를 만났을 때 무의식 중에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라는 것에 있다. 이현은 이토 소위와 일본군을 보고 도망치는 가야에게 “오마치구다사이(お待ち下さい!) 오마치구다사이!”를 반복해서 외치는 동안 자신이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물론 이현이 이토 소위와 흥금을 튼 친구 사이라고 해서 이현이 그의 고백처럼 ‘완전한 일본인’인 것은 아니다. 즉, 완전한 조선인과 완전한 일본인 사이에는 전향한 조선인, 일본인과는 다르지만 일본인처럼 자라난 조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이현의 정체성은 그 자체로 친일과 저항의 이분법을 넘어서게 하는 트랜스내셔널리즘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현은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라는 방향성을 지닌 박준이나 옥상열과는 반대로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라는 방향성을 띤다. 박준과 옥상열이 전향을 표상하는 인물이라면 이현은 ‘거꾸로 된 전향’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누님과 매형을 위해 오리라”라는 이현의 다짐은 그에 앞서 고백한 “훌륭한 동아의 한 사람, 세계의 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된다.

이편으로부터 가야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관계로 모든 일을 망쳐버린 윤장산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윤장산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간음과 관련된 십계명의 금지 원칙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전향 서사를 통해 남녀 관계의 문제를 넘어 민족 배신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현의 ‘거꾸로 된 전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가야의 영향으로 조선적 기독교가 몸에 배어 있었지만, 일본적으로 자라나며 일본어 및 일본적 기독교에 익숙해져 북경행 열차 바깥의 만주 풍경을 일본인처럼 느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가야와 장산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먼저 ‘거꾸로 된 전향’을 통해 진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현이 고려청자와 이조백자를 조선으로 가져가기 위해 사용한 삼백 원의 출처는 「향수」 안에서 조선적 기독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어머니였으며, 결국 “이번에는 누님과 매형 차례다”라는 의기에 찬 그의 말은 삼백 원에 대응되는 ‘거꾸로 된 전향’이라는 값의 지불을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꾸로 된 전향’ 의식은 가야가 몽강권, 법폐, 만주권, 연은권 등 아편 밀매로 모은 여러 종류의 화폐로 이현의 평양행 열차표를 사는 것과 연결된다. 이현이 열차표를 가난한 아편 중독자들의 ‘피와 함께 착취’한 것이라고 되새기는 장면은 김사량이 ‘핏값으로 지불된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지폐들에는 고려청자와 이조백자의 구원해달라는 외침처럼 가야를 비롯한 아편 중독자들의 구원을 향한 몸짓과 부르짖음이 담겨 있음을 김사량은 드러내고 있다.

즉,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만들어진 끔찍한 인간 타락의 공간 아편굴에서 나온 돈은 아편 중독자들의 핏값으로서 가야가 나중의 구원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값의 지불과 구원에 대한 은유는 가야가 “월계수관을 머리에 쓰고 불에 피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예수의 액자”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으로까지 연결된다.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 사건은 배반당할 것을 알고도 핏값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김사량이 「향수」에 원용한 기독교는 일본적 기독교에서 탈피하여 일반 기독교 교리의 핵심에 다가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야의 배경 이주와 아편 중독이라는 곤경은 광형덕의 지적과 같이 구약성서 「예레미야」 및 「예레미야 애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바, 이현이 가야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꾸로 된 전향 의식’은 아편과 같은 일본 제국주의를 벗어나 진정한 구원으로 가지는 ‘귀향 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현의 일본적인 측면, 곧 이중언어적 측면은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사실상 벗어날 수 없는 낙인과도 같지만, 그것을 지닌 채로

도 귀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적 기독교의 바탕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자부하는 이현의 태도와 주변 인물들의 전향 서사를 배치하고도, 그 이면에 제국주의와는 다른 일반 기독교 핵심 교리를 원용하며 ‘거꾸로 된 전향’을 표방한 김사량의 출구는 결국 친일적 요소를 안은 채로 조선인으로 귀향하는 길이었던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친일과 저항을 동시에 담고 있는 이중적 양상을 넘어, 실로 가장 트랜스내셔널리즘적인 위치에서 내셔널리즘적 지향성을 기독교를 통해 실현했던 김사량의 치밀한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사랑, 「향수」, 『김사랑, 작품과 연구1』, 김재용·곽형덕 편역, 역락, 2013.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판 한글성경』, 아가페출판사, 2008.

2. 논문 및 단행본

곽형덕, 「김사랑작 〈향수(鄉愁)〉에 있어서의 ‘동양’과 ‘세계’-‘전향’의 전제 조건을 둘러싸고」, 『현대문학의 연구』 5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김산덕, 『천황제와 일본 개신교』, 새물결플러스, 2020.
 김재용, 「일제말 김사랑 문학의 저항과 양극성」, 『실천문학』 83, 실천문학사, 2006.
 김재용, 「김사랑과 중국」, 『한민족문화연구』 54, 한민족문화학회, 2016.
 김주리, 「아편굴의 조선인 - 일제강점기 소설 속 아편 밀매업자 표상 연구」, 『구보학보』 15, 구보학회, 2016.
 김철, 「두 개의 거울: 민족 담론의 자화상 그리기 - 장혁주와 김사랑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7, 상허학회, 2006.
 김현생, 「김사랑의 문학세계에 나타난 토포스와 서사적 의미 - 「천마」, 「무궁일가」, 「향수」를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 문화』 78,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나병철, 「김사랑 소설에 나타난 사상적 전향과 문화의 기억」, 『한국현대문학연구』 57, 한국현대문학학회, 2019.
 맥스 아이작 디몬트, 『책의 민족·유대인 디아스포라 4천 년의 역사 읽기』, 교양인, 2019.
 모지현, 「내셔널리즘을 횡단하는 ‘비(非)국민’의 시선 - 김사랑의 「향수」에 나타나는 아편 중독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97, 한국문학회, 2024.
 박강, 『20세기 전반 동북아 한인과 아편』, 선인, 2008.
 박재갑, 『에레미야(애가) 강해』, 좋은 땅, 2010.
 안우식, 『김사랑 평전』, 문학과지성사, 2000.
 양현혜, 『근대 한·일 관계사 속의 기독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오다 마코토, 「어떤 부정하기 힘든 힘-김사랑의 「향수(鄉愁)」」, 『김사랑, 작품과 연구1』, 역락, 2008.
 이양숙, 「일제 말 북경의 의미와 동아시아의 미래 - 김사랑의 「향수」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이경재, 「김사랑의 「향수」에 나타난 세 가지 향수(鄉愁)」,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

학연구학회, 2016.

전계성, 「김사랑 소설의 기독교적 트랜스내셔널리즘 -「빛 속으로」, 「천마」, 「광명」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9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5.

하신애, 「제국의 시선과 식민지의 눈(들)-오태영의 『오이디푸스의 눈』 (2016)을 통해 본 동아시아 연구의 향후 과제들-」, 『사이間SAI』,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6.

<Abstract>

Christian Consciousness in Kim Sa-ryang's “Nostalgia”

– Focusing on the Meaning of Political Conversion and
Cosmopolitanism

Jeon, Gye-seong

This article analyzes the narrative of political conversion and cosmopolitanism in Kim Sa-ryang's “Nostalgia”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The Christian elements scattered throughout “Nostalgia” provide a key to elucidating the dual consciousness of political conversion that underpins the narrative. “Nostalgia,” released in Japan in Japanese, contains over 40 overt Christian expressions. This is because the Christian consciousness of “Nostalgia” was a smokescreen for Japanese Christianity combined with the imperial system. On the surface, Christian salvation rituals appear to be a means of political conversion for opium addicts and a reconversion to their homeland. As the train ticket to Pyongyang for Lee Hyeon, purchased with the blood money of opium addicts, appears, the image of Gaya weeping in front of a picture frame of a bleeding Jesus and the 300 won for the reconversion of Goryeo celadon and Joseon white porcelain are connected. In particular, the phrases from “Lamentations” that Gaya unconsciously blurted out and the message of regeneration that Lee Hyeon gave to Gaya through “Jeremiah” are reminiscent of the Jewish narrative of betrayal, punishment, and reconversion (restoration) to Jehovah. These devices lead the bilingual Lee Hyeon, who can never erase Japan, to a “reverse political conversion”

—that is, to the Christian salvation of the Joseon—rather than concluding his consciousness of salvation in “Nostalgia” with Japanese Christianity. This truly demonstrates Kim Sa-ryang's meticulous strategy of realizing his nationalistic orientation through Christianity from the most transnationalist position.

Key words: Kim Sa-ryang, nostalgia, political conversion, diaspora, cosmopolitanism, transnationalism

투 고 일: 2025년 8월 14일

심 사 일: 2025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2025년 9월 28일